

## 이 땅의 엘자아르 부피에를 찾아서

생명의숲 상임대표 조연환(전산림청장)

프랑스 소설가 장 지오노가 지은 '나무를 심은사람'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소설속 엘자아르 부피에는 양치는 목자로서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는 사막에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도토리가 나고 자라서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피어 살기좋은 낙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엘자아르 부피에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공직자로 평생을 살아온 동료이자 친구들인 10명의 가족이 모임을 만들고 1년에 몇차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부시게 푸르른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기 위하여 이번에 이 땅의 엘자아르 부피에를 찾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과 북일면 일원에 걸쳐있는 축령산 자락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춘원 고 임종국 선생님께서 1956년부터 240ha 70여 만평의 산에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숲을 이루어 놓은 곳입니다.



고 임종국 선생님은 평생 나무를 심고 가꾸기만 하시고 심은 나무에서 돈한푼 만져 보지 못하셨습니다. 더이상 나무를 심고 가꿀 여유가 없자 이 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지요.

자식보다 아끼며 사랑한 나무를 팔은 심정이 어떠한이었을까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무곁을 떠나지 못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잇고자 산림청에서 이 산을 매입하여 지금은 국유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진 돈 다 투자하여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숲을 만들어 놓으시고 임종국 선생님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엘자아르 부피에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는 일, 이런 일은 선각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나무를 심은 고 임종국 선생님은 떠나셨어도 이 숲에는 오늘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생로병사에 이 숲이 소개된후로 숲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KBS 밤 9시 뉴스후 '동행' 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와 방향성 물질이 아토피와 암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돈되지 않는다고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오늘 이처럼 훌륭한 숲을 우리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무를 심은 고 임종국 선생님은 가족과 이웃사람들로 부터 미친 짓이라는 욕과 비난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숲을 떠나 먼 곳에 모셔졌습니다. 산림청장으로 재임시 고 임종국 선생님의 유해를 이 곳 죽령산 선생님께서



## 특별기고

심고 가꾸신 숲으로 모셔오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일이 성사되어 선생님을 이곳에 수목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보람있는 일이 있었다면 고 임종국선생님을 '숲의명에 전당'에 헌정하여 드린일, 임종국선생님이 심고 가꾸어 놓으신 이 숲을 산림청에 매입토록 한 일, 산림청장이 되어 이 숲을 찾아 선생님 기념비에 헌화하고 귀한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다짐한 일, 그리고 선생님의 유골을 선생님께서 평생 심고 가꾸오 놓으신 이곳 죽령산 숲 안에 수목장으로 모신 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숲을 다시 찾은 평생산지기 동료들은 선생님의 나무에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처럼 훌륭한 숲을 이 땅에 남겨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 숲은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 찾아와 건강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으며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위대한 유산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나무아래 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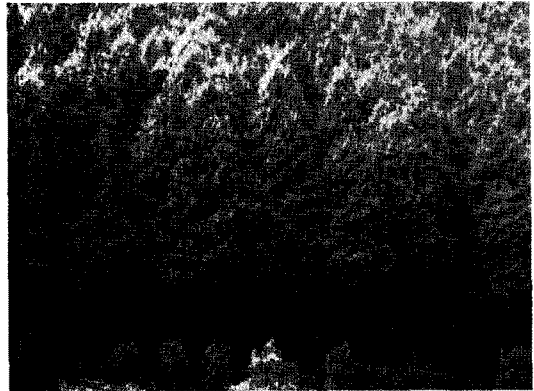
사막에 나무를 심어 낙원을 만든 엘자아르 부피에는 소설속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춘원 고 임종국 선생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숲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숲을 찾고 있으나 정작 이 나무를 누가 심고 가꾸었는지, 그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엘자아르 부피에 이신 고 임종국 선생님 그 분을 보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두번째로 찾은 곳은 전라남도 강진군 천관산 자락에 자리잡은 '초당림'입니다. 축령산의 숲은 고 임종국선생님 개인이 심고 가꾸신 숲이라면 이곳 초당림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심고 가꾸어 오신 숲입니다. 백제약국으로 잘 알려진 백제약품 김기운 회장님께서 1960년대부터 200여만평의 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400만 그루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초당림에는 편백나무와 삼나무도 잘 자라고 있지만 특히 백합나무와 테다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백합나무와 테다소나무는 미국에서 건너온 나무로서 자람새가 빠르고 목재의 재질도 좋은 나무들입니다. 특히 백합

나무는 30년만 자라면 우리 팔로 한아름 반이 넘는 정도로 잘 자라고 잎과 꽃이 아름다우며 가지 치기를 할 필요도 없어 대표적인 경제수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산림청)에서 해야 할 일을 김기운 회장님께서 나무와 숲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나라에 알맞는 조림수종을 찾아내어 성공한 셈입니다. 한 아름도 넘는 백합나무를 안아보며 우리 모두는 행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이 나무를 훌륭하게 키워낸 한 기업가의 정신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 특별기고

나무를 심는 것은 돈이 안되기는 기업도 마찬가지로여서 초당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아래 표고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7만본이나 되는 표고나무(자목)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돈의 일부를 벌여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숲을 관리하는 소장님께 살짝 여쭙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돈은 해결이 됩니까?' '아직도 회장님께서 많은 돈을 이곳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께서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투자할 돈을 버시느라 기업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되지는 않지만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업이 많아져야 이 땅의 산림이 더욱 율창해지고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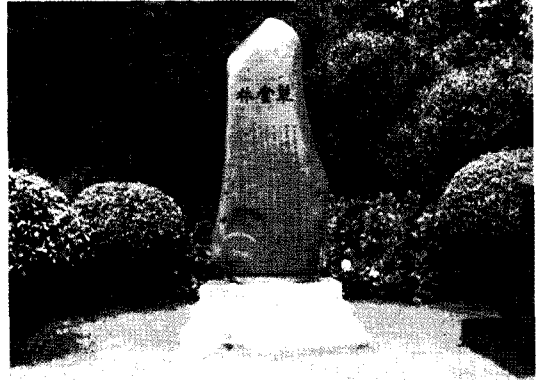
평생 산지기로 살아온 친구들과 그 가족들은 이른 새벽 비를 맞으면 초당림의 이곳 저곳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의 나이테를 세어보고 현장에서 열띤 토론도 가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떠났지만 산지기의 직임은 평생을 이어갈 것입니다.

'비오는 날의 수채화' 이 보다 아름다운 수채화가 또 있을까요?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풍경을 카메라가 잡았는데 버리기엔 아까워 이렇게 살짝 넣어 봅니다. 평생을 산지기와 산지기의 아내로 살아온 자들의 길이 이처럼 아름다움을 자랑이라도 좀하고 싶어서...



한국임학회에서는 초당림을 이루어 놓으신 '초당 김기운' 회장님의 업적을 기려 초당림

기념비를 초당림 숲안에 이렇게 설치 해 주었습니다. 어찌 그 공을 이 비석으로 대신할 수 있으리오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업적을 이 기념비는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익이 되지 않는 숲을 심고 가꾸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초당림의 숲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축령산 조림지와 초당림 조림지를 돌아본 평생 산지기들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이 땅에 엘자아르 부피에 들어 있는 한 이 땅은 희망이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산지기들의 보람도 커 간다는 사실에 흐뭇해 하였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엘자아르 부피에가 아닌 이 땅의 엘자아르 부피에 들어 이룩해 놓은 숲들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의 고귀한 삶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눈앞에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모두에게 행복을 심는 분들입니다.



고 춘원 임종국 선생님 그리고 초당 김기운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